"中企 경영활동 전념토록 세무조사 부담 완화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신남방국가 세정지원 강화 등 건의
"유예 대상 확대, 현장조사 축소"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김대지 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국세청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달했다.

김 청장과의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한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과감히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주식 사전증여를 통해 계획적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면서 "하지만 증여세 분납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세금납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계획적 기업승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주식 사전 증여 시 10년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세정지원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김대지 청장은 "(중소기업의)세무 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 부담을 낮추고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종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 현지 세무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홈택스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 디지털 세정 구현 ▲카카오톡·유튜브를 활용한 국세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의 신남방국가 진출이 많은 만큼 국세청이 세정 가이드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 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조세특례 등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신남방국가 진출 기업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공공기관, 中企 국방기술 사업화 '합심'

중기부-ADD-기보-창업지흥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성장 지원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국방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3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국방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권칠승 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기술 활용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DD와 중기부 유관 기관들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방기술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창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Tech-Bridge에 ADD 보유 특허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에 국방기술정보를 제공해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거래중개 및 후속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ADD는 우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국방 R&D 후속 지원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에 앞장선다. 기정원은 ADD 군경력 활용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R&D 가점을 부여하고, ADD의 우수인력이 기정원 R&D 사업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중기 해외 판로확대 MOU 체결

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

홈앤쇼핑 김형락 중기성장지원실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신욱 기획조정본부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15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은 홈앤쇼핑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 중소기업 협력사의 해외 마케팅 활동과 판로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로 3년째인 관련사업은 매년 지원 규모도 늘려나가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출연해 해외 홈쇼핑 입점을 지원했다. 올해는 금액을 4억원으로 늘려 ▲스타트업 육성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중소기업 CEO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기획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홈앤쇼핑을 통해 국내에서 상품력을 인정받은 라비오뜨 콜라겐 마스크팩, 무드매처 립스틱, 바른엔젤 헤어 등 15개 중소기업 상품이 대만의 모모홈쇼핑에 론칭해 10억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녹색소외지역에 도시숲 조성

지역사회 환경 개선

CJ대한통운이 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 녹색소외지역에 자연 탄소흡수원인 도시숲을 조성하며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량 줄이기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녹지가 부족한 녹색소외지역을 제안 받아 숲을 조성해주는 '그린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에 녹색소외지역을 공유하는 '#그린맵숲챌린지'를 16일부터 8월까지 펼친다. CJ대한통운은 시민들이 공유한 녹색소외지역 중 대상지를 선정, 9월 중 도시숲을 조성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그린맵숲챌린지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숲이 조성되길 희망하는 지역의 사진과 지도 이미지를 희망 이유,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또한, 챌린지 참여자 중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완료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집에서도 손쉽게 씨앗을 발아, 재배할 수 있는 '씨앗 재배 키트'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현대百 프리미엄 쇼핑위크

에이스침대가 브랜드 최초로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에이스침대는 백화점 이용객과 혼수를 준비하는 부부에게 브랜드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사의 핵심 제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오는 20일까지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본점 별관 4층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모션에선 '로얄 에이스' 전 제품 등 다양한 라인업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파주 야당동에 '시몬스 맨션' 오픈

파주운정가구단지 초입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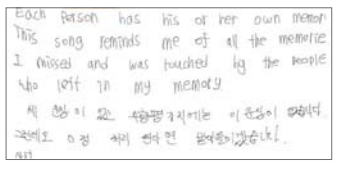
시몬스가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 '시몬스 맨션 파주운정점'을 열었다.

'시몬스 맨션'은 시몬스 침대 본사가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진열 제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100% 지원하는 매장이다.

시몬스 맨션 파주운정점은 수도권 대표 가구단지인 파주운정가구단지 초입에 위치해 이사 및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등의 방문이 쉽다. 또 제2자유로와 인접해 인근 지역인 고양시 탄현동, 덕이동, 운정동은 물론 김포 등 경기 서북부 지역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다. 여기에 매장 인근에는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GTX-A노선 운정역 개통도 예정돼 있어 향후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상 2층으로 구성된 시몬스 맨션 파주운정점은 시몬스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Beautyrest)'의 인기 모델인 '윌리엄(William)'과 '헨리(Henry)'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안동 여고생' 유족 "부정행위 낙인이 죽음으로 내몰아" /사진 뉴시스

▲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정은경 "어패류 익혀먹어야"

▲ 이준석 압박 나선 與 "수술실 CCTV 설치 동참…청년다움 잃었나"

▲ G7서 한일회담 불발…日언론 "한국 불신에 애초 부정적"

▲ 김두관,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할 상황"… 출마 시사 /사진 뉴시스

▲ 백신 접종 이어지며 '타이레놀' 품귀…"약국서 아세트아미노펜 찾으세요"